

여대생의 체형별 신체만족도와 의복이미지 연구

이 미 진 · 김 양 원[†]

대전대학교 패션디자인 비즈니스학과

Body Cathexis and Clothing Image of Female Collegians by Somatotype

Lee, Mi Jin · Kim, Yang Weon[†]

Department of Fashion Design, Business,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ABSTRACT

To fi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eal somatotype and the ideal somatotype, WHR(Waist to Hip Ratio), WCR(Waist to Chest Ratio), and body cathexis were analysed by using ANOVA 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x^2 test. Fashion image sought by female collegians was surveyed, to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WHRs in slim, usual, fat body type were 0.75, 0.76, and 0.83 and WCRs were 0.77, 0.81, 0.80. The respondents who considered themselves to be overweight recognized themselves to be fatter than their real weight. They were not satisfied with their bust girth in slim body type, thighs and calves in usual body type, and all parts except for foot length, hand length and arm length in fat body type. 60% of the thin people considered their body hourglass shape, 30.4% of regular people recognized their body triangle type, 43.8% of fat people thought their body was round form. They thought current ideal body size was bigger in height and bust girth and smaller in waist girth and hip girth, and weight than real body size. Also they responded ideal body shape was an hourglass type independent of somatotype. The pursuit of clothing image was that 45.5% of female collegians were fashionable and raffine and 10.4% of female collegians was elegant and graceful. Among the body area, body parts that may have an effect on body image were body length in 13.1% of the respondents, waist girth in 10.7% of the respondents, and hip girth in 10.0% of the respondents.

Key words: Body cathexis, fashion image, WHR, WCR

I.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자의식도 발달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체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외모는 인간관계속에서 첫인상과 같이 개인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각 개인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다보니 여성들의 미에 관한 관심도 및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추이가 건강보다는 아름다운 체형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체형이란 되도록 마른

접수일: 2011년 11월 17일 심사일: 2011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28일

[†]Corresponding Author: Kim, Yang Weon Tel: 82-10-4404-2463

e-mail: kyang@dju.kr

체형으로 인식되어져 있다(Park et al. 1995). 좋은 외모의 구성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체형은 적절한 의복을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로 체형에 따라 패션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옷을 입더라도 어울리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신체이미지는 개인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Cooper & Taylor 1988)으로 개인이 자신의 외모와 신체기능, 신체 상태에 대해 지니고 있는 느낌이나 태도(Fisher & Cleveland 1968)를 말한다. 신체이미지는 자아개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체적 매력과 관련이 깊고 의복만족도와도 많은 관련이 있다. 각 개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체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결점은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즉, 자신이 원하는 패션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체형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의복의 기본요소인 소재, 색상, 디자인을 이용하여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고 매력을 강조하여 이상적인 체형으로 보이도록 해야 한다.

체형은 키와 몸무게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키와 체중이 같더라도 신체의 모양은 삼각형, 사각형, 원형, 타원형 등 각각 모양이 다르고, 허리가 긴 체형, 다리가 짧은 체형 등 체형은 다양각색이다. 그래서 체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허리와 엉덩이비율인 WHR(Waist to Hip Ratio, 엉덩이둘레에 대한 허리둘레의 비율, 이하 WHR이라 칭함)을 여성의 매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WHR의 가장 이상적인 지수는 0.7이라 하였고, 오드리 햅번, 마릴린 먼로, 소피아 로렌도 모두 0.7에 가까운 비율을 가졌다고 하였다(Singh 2002). 그러나 미의 기준은 시대, 인종과 문화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WHR이 중국에서는 0.6, 남미와 아프리카 일부에서는 0.8, 0.9를 이상적인 수치라 하였다(Dixson et al. 2007; Marlowe & Wetsman 2001).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들은 매력적이고 이상적인 WHR을 만들기 위해 코르셋이나 엉덩이 패드를 이용하여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상적인 체형을 나타내려 노력하였다. 최근에 와서도 이상적인 체형을 만들기 위한 여성들의 노

력은 운동이나 다이어트 등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WCR은 가슴둘레에 대한 허리둘레의 비율로 시각적인 체형구분에 있어 상반신의 체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Fink et al. 2003). 특히 남자들의 상반신 시각적 실루엣을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가슴의 크기와 허리둘레의 비율은 여성의 매력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Furnham et al. 1998; Singh & Young 1995)라고 하여 WCR이 여성의 체형을 판단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신체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Ha et al. 2005; Ryou & Kim 2008; Shin & Choi 2008),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연구(Hong 2005; Kim & Lee 2001; Lee 2008), 광고나 패션잡지 등 TV, 미디어에 나타난 신체이미지 분석(Kwon 2003; Kwon 2006; Lee 2008)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자신의 부위별 신체치수에 대한 만족도 및 이상체형에 관해서는 분석되어 있으나 WHR과 같은 지수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고, 또한 이것을 토대로 한 패션이미지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에 거주하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와 체형을 WHR과 WCR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연구 대상자의 실제 체형과 이상체형과의 차이를 파악하며 추구하는 패션이미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신 있고 이상적인 체형을 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전 20대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4월 17일~18일이며, 직접조사 및 인터넷 메일과 메시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200부의 설문지 중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미미한 것을 제외한 172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로 설문지의 구성은 신체만족도, 신체의 비만과 수척에 대한 인식도, 이상신체상과 추구하는 이미지, 인구통계학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신체만족도 항목에서는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인 신체부위를 조사하였고, 인체의 실루엣에 영향을 주는 신체부위를 파악하였다. 신체의 비만과 수척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자신의 체형이 마르거나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실제 신체치수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체치수를 답하게 하였다. 추구하는 신체상과 이미지 항목에서는 선호하는 신체상과 외출복 착용 시 추구하는 의복이미지를 알아보았다. 설문지는 Lee와 Park(2008)의 논문을 참고로 하여 제작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는 SPSS/WIN 12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체형별 신체만족도 및 불만 부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χ^2 검정을 하였고, 신체사이즈에 대한 자료를 기초통계인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t-test를 통해 실제체형과 이상체형을 비교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 같다. 나이는 평균 22.7세이고, 키는 162.6cm, 몸무게 51.0kg이었다.

체형분류는 Rohrer's Index, Broca Index, BMI (Body Mass Index)를 이용하였고, 신체지수 판정 기준은 Lee 등(1997)의 연구에 기초하여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본인이 '말랐다' 고 답한 사람은 52명(30.2%)이었고, Rohrer's Index는 105.5로 많이 마른 체형으로 분류되고, Broca Index는 80.9로 마른 체형 범위에 속했으나, BMI는 평균

17.3으로 약간 마름에서 보통 체형으로 나타났다. '보통 체형'이라고 답한 사람은 64명(37.2%)이었으며 Rohrer's Index는 119.5로 마른 체형으로 분류되었고, Broca Index는 91.3으로 보통 체형에 속하는 값이었으며, BMI는 19.4로 약간 마른 체형으로 분류되었다. 본인이 '뚱뚱하다' 라고 답한 사람은 56명(32.6%)이었고, 모두 보통 체형으로 분류되었다. 체형분류의 방법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나, 자신을 뚱뚱한 체형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대부분의 체형 분류법에서 보통 체형으로 나타나, 자신을 실제보다 더 뚱뚱하게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Mean±SD for body index by body type of subjects

	Slim body type (n=52)	Usual body type (n=64)	Fat body type (n=56)
Height(cm)	163.9±4.9	162.6 ± 4.7	161.4 ± 3.4
Weight(kg)	46.5±4.2	51.3 ± 5.1	56.5 ± 8.1
Rohrer's index	105.5±5.3	119.5 ±11.2	134.8 ± 16.6
Broca index	80.9±3.9	91.3 ± 8.1	102.5 ± 12.8
BMI	17.3±0.8	19.4 ± 1.7	21.7 ± 2.8
WHR	0.75±0.09	0.76± 0.09	0.83± 0.14
WCR	0.77±0.05	0.81± 0.06	0.80± 0.04

Rohrer's Index = $10^7 \cdot W/H^3$

Broca Index = $10^2 \cdot W/\{(0.9 \cdot (H - 100))\}$

Body Mass Index = $W/(H/100)^2$

WHR= Waist/Hip Ratio

WCR= Waist/Chest Ratio

WHR은 마른 체형과 보통 체형의 경우 각각 0.75, 0.76이고, 뚱뚱한 체형의 경우에는 0.83으로 다른 체형과 차이를 보였다. WHR이 클수록 허리가 잘록하지 않고 뚱뚱한 체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WCR은 마른 체형은 0.77, 보통 체형은 0.81, 뚱뚱한 체형은 0.80으로 보통 체형이 가장 큰 값을 보였다. WHR과 WCR로 신체이미지를 유추해 보면 마른 체형과 보통 체형의 경우

WHR보다 WCR이 크고 즉, 가슴둘레보다 엉덩이 둘레가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뚱뚱한 체형의 경우는 WHR이 WCR보다 더 크며 이것은 가슴둘레보다 엉덩이둘레가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로 볼 때 보통 체형이라고 답한 사람은 역삼각형 신체이미지를, 뚱뚱하다고 답한 사람의 경우는 삼각형 신체이미지의 경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말랐다고 답한 사람은 WCR과 WHR이 비슷하여 직사각형 신체이미지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Rohrer's Index나 Broca Index, BMI의 결과로는 마르거나 보통 체형에 속하지만 인체의 굴곡지수라 할 수 있는 WCR과 WHR에 따라 마르거나 뚱뚱하다고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20대 여성은 자신이 보통 체형이라 할지라도 인체의 굴곡도 즉, 허리가 잘록하지 않으면

뚱뚱하다고 인지한다고 볼 수 있다.

2. 신체만족도

설문을 통해 5점 척도(1=매우불만, 5=매우만족)로 측정된 신체 각 부위의 신체 만족도의 평균, 표준편차 ANOVA 분석결과를 Table 2와 같다. 마른체형(2.1~4.2)이 보통체형(1.9~3.3)이나 뚱뚱한 체형보다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사회적으로 이상체형이 슬림형(Nam & Lee 2001)이며 이에 부합하는 마른체형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마른체형에서는 만족도 점수가 2점 이하로 불만을 갖는 부위는 없었고, 보통체형에서는 넓적다리둘레(1.9)였으며, 뚱뚱한 체형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신체부위는 허리둘레(1.5), 엉덩이둘레(1.5), 목두께(1.9), 윗팔둘레(1.4), 넓적다리 둘레(1.3), 장딴

Table 2. Degree of satisfaction for the parts of the body of subject (Mean±SD)

	Slim body type (n=52)	Usual body type (n=64)	Fat body type (n=56)	F value
Bust circumference	2.1±1.0	2.5±1.0	2.3±0.9	1.4
Waist circumference	3.7±0.8	2.3±1.1	1.5±0.7	17.6 ***
Hip circumference	2.5±1.1	2.2±1.1	1.5±0.8	3.6 *
Shoulder width	3.2±0.9	2.8±1.2	2.3±1.2	2.7
Head size	3.4±1.5	2.7±1.1	2.5±1.3	2.6
Neck length	3.4±1.5	3.2±0.9	2.1±1.0	8.0 **
Neck thickness	3.9±1.2	3.3±0.9	1.9±0.9	18.4 ***
Upper arm circumference	3.9±1.2	2.4±1.0	1.4±0.7	23.4 ***
Forearm circumference	4.2±0.9	2.8±1.1	2.1±1.3	15.4 ***
Hand size	3.3±1.3	3.2±1.2	3.3±1.3	0.1
Wrist circumference	3.9±1.1	3.5±1.2	2.9±1.5	3.1 *
Thigh circumference	3.3±1.3	1.9±1.1	1.3±0.8	16.4 ***
Calf circumference	3.4±1.4	2.0±1.1	1.5±1.1	12.8 ***
Foot size	3.3±1.3	3.2±1.3	3.4±1.4	0.2
Ankle circumference	3.9±1.4	3.1±1.0	2.8±1.5	4.7 *
Arm length	3.6±1.4	3.3±1.0	3.2±1.3	0.7
Leg length	3.2±1.6	2.5±1.2	1.9±1.4	3.8 *
Trunk circumference	3.7±1.0	2.6±1.0	1.8±1.2	13.0 ***
Height	2.4±1.5	2.6±1.3	2.3±1.3	0.4
Weight	3.7±1.1	2.2±1.2	1.3±1.0	17.4 ***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지 둘레(1.5), 다리길이(1.9), 몸통둘레(1.8), 체중(1.3)으로 불만족부위가 9항목으로 다른 체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체형에 따라 불만족 부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항목도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만족도가 3점이상(보통이상)인 항목은 마른체형에서는 허리둘레, 어깨너비, 머리카기, 목길이 목두께, 윗팔둘레, 아래팔둘레, 손크기, 손목둘레,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 발크기, 발목둘레, 팔길이, 몸통두께, 체중 등 16항목이었다. 보통체형에서는 목길이, 목두께, 손크기, 손목둘레, 장딴지둘레, 발크기, 발목둘레로 6항목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뚱뚱한 체형에서는 손크기, 발크기, 팔길이 3항목만이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는데, 본인이 뚱뚱하다고 인지하는 여성은 비판과 상대적으로 비교적 관련이 적은 항목인 크기나 길이 항목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 체형간 만족도의 차이가 컸던 항목($p<.001$)은 허리둘레, 목두께, 윗팔둘레, 넓적다리둘레, 장딴지둘레, 몸통둘레, 체중이었다. 이는 Choi(2008)의 연구에 의하면 여대생들은 체형에 대한 선호도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너비는 더 좁고 가는 체형을 원하며, 둘레항목과 두께항목에 있어서 적은 치수를 선호한다고 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체 각 부위에 대하여 체형간 차이가 없는 부위는 가슴둘레, 어깨너비, 머리카기, 손크기, 발크기, 팔길이, 신장 등 6항목으로 가슴둘레를 제외하고 너비나 크기 항목으로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사이즈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부위임을 알 수 있다.

3. 신체 비만과 수척의 인식도와 이상체형

인체부위별 수척·비만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느낌을 5점척도(1=말랐다, 5=뚱뚱하다)로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사대상자가 느끼는 수척과 비만 인지도는 전신, 상반신, 하반신 모두에서 체형별 차이가 컸다. 신체의 여러 항목 중 마른 체형 일수록 전신, 상반신, 하반신 모든 항목에서 말랐다(1)에 가까운 값을 보였고, 뚱뚱하다고 답한 응

답자일수록 뚱뚱하다(5)에 가까웠다.

상반신과 하반신에 대한 수척과 비만 인지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세 가지 체형 모두 하체를 더 뚱뚱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마른 체형과 보통체형에서는 차이가 분명하였다. 즉 마른 체형과 보통체형이라고 인식하는 여대생들은 자신의 상체를 좀 더 빈약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Table 1에서의 WCR과 WHR을 살펴보면 마른 체형과 보통 체형은 가슴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커서 상반신이 더 컸으나 오히려 하반신이 더 큰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실제체형에서 가슴둘레가 엉덩이둘레보다 크다 하더라도 가슴을 강조하는 옷차림과 같은 사회적인 트렌드로 인해 여대생들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된다. 반면 뚱뚱한 체형은 엉덩이둘레가 가슴둘레보다 크게 나타나 하반신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상·하반신 모두 뚱뚱하게 느꼈다.

Table 5는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인지도를 체

Table 3. Degree of slim and fat recognition for the parts of the body

	Slim body type	Usual body type	Fat body type	F value
Whole body	1.3±0.6	3.2±0.5	4.4±0.5	123.5***
Upper half of the body	1.5±0.6	3.2±0.7	4.3±0.7	65.0***
Lower half of the body	1.8±0.9	3.7±0.8	4.5±0.7	52.0***

*** $p\leq .001$

Table 4. Comparison of degree of slim and fat recognition between upper half body and lower half of the body

	Upper half of the body	Lower half of the body	T value
Slim body type	1.5±0.6	1.8±0.9	2.54*
Usual body type	3.2±0.7	3.7±0.8	3.12*
Fat body type	4.3±0.7	4.5±0.7	1.42

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체형에 관한 분류는 Rasband(1994)의 분류법을 기준으로 하였다. 마른 체형의 경우는 59.2%정도가 자신을 모래시계형 신체이미지로 인지하고 있었고, 보통 체형의 경우 29.7%가 삼각형 신체이미지라고 답하였다. 뚱뚱한 체형의 경우는 42.9%가 자신을 원형의 신체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1에서의 WCR과 WHR로 비교할 때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Table 2에서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위인 넓적다리둘레와 장딴지둘레가 하체라는 것과 관련해 볼 때 뚱뚱하게 생각할수록 하체둘레가 크다고 인지하였다.

Table 5. Degree of the recognition for their body shape(%)

	Slim body type	Usual body type	Fat body type	Total
Hourglass shape	59.6	26.5	25.0	31.0
Rectangular shape	21.2	18.8	12.5	18.0
Triangle shape	-	29.7	12.5	23.0
Inverted triangle shape	19.2	4.7	7.1	7.0
Circle shape	-	20.3	42.9	21.0

응답자들이 바라는 이상치수와 자신의 실제치수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여자 대학생은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의 5가지 항목에서 모두 자신의 실제체형과 이상체형 간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키, 허리둘레, 몸무게 항목에서 더욱 큰 차이를 느끼고 있었는데, 키의 경우 실제 평균 신장은 162.6cm이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장은 166.8cm로 평균 4.1cm가 차이가 있었다. 가슴둘레의 경우에도 자신의 신체치수보다 이상치수가 평균 2.8cm 더 크게 나타났으며,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이상치수는 각각 평균 3.1cm, 2.9cm가 자신의 실제사이즈보다 작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몸무게는 평균 51.0kg이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몸무게는 49.0kg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면 키와 가슴둘레는 자신의 실제치수보다 큰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에서는 치수가 작아지길 원하고 있었다. 이는 정재은과 남윤자(1999)의 20대 여성의 신체만족도 및 이상형의 연구와 최미성(2008)의 남녀대학생의 체형인식과 선호체형에 대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자신의 체형과 이상체형간의 Rohrer's Index, Broca Index, BMI 지수는 유의차가 있었다. 또 본 연구대상자는 평균적으로 약간 마르거나 보통인

Table 6. Comparison between real size and ideal size of female collegians (Mean±SD)

Body parts	Ideal size	Real size	t-value
Height	166.8±3.1	162.6± 4.6	9.8***
Bust girth	86.8±5.3	84.0± 7.1	3.2***
Waist girth	63.0±4.5	66.1± 8.3	-3.2***
Hip circumference	84.3±9.1	87.2± 9.4	-2.5*
Weight	48.9±3.6	51.0± 6.1	-3.6***
Rohrer's index	105.9±7.3	118.7±13.8	-8.7***
Broca index	81.7±5.5	90.7±10.2	-8.2***
BMI	17.6±1.2	19.3± 2.1	-7.4***
WHR	0.76±0.1	0.78± 0.11	-1.3
WCR	0.73±0.05	0.80± 0.06	-8.5***

*p≤.05, **p≤.01, ***p≤.001

체형이지만 좀 더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R은 이상치수와 실제 치수와의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HR과는 달리 WCR에는 유의차가 있었는데, 실제 WCR은 0.80이지만 이상치수에서 나타나는 WCR은 0.73으로 나타났다. WHR과 WCR의 값을 보면, 실제 신체이미지는 가슴둘레보다 엉덩이둘레가 큰 삼각형이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이미지는 가슴둘레가 크고, 허리둘레가 작으며, 엉덩이도 작은 형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는 실제치수와는 다르게 허리는 줄어들고, 가슴은 크며, 엉덩이는 작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Rasband(1994)는 인체 각 부위의 비율 및 체중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에 따라 정면체형을 기하학적 모양으로 분류하였는데, WHR과 WCR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의 이상체형은 모래시계형 체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자 172명중 116명은 엉덩이둘레보다는 가슴둘레가 큰 체형을 가지고 있어서 체형분류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체형과 추구 이미지

외출복 착용 시 추구하는 의복이미지를 선행 연구(Lee & Park 2008; Row & Park 2008)를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크게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이미지’,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 ‘편안하고 활동적인 이미지’,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이미지에는 4가지 항목의 세부 이미지를 포함하였다.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이미지’에는 패셔너블, 독특한, 세련된, 날씬한,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는 우아한, 품위 있는,

고급스러운, 지적인, ‘편안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는 편안한, 실용적인 활동적인, 단순한, 마지막으로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에는 스포티한, 여성스러운, 귀여운, 어려보이는 이미지를 포함시켰다.

체형에 따라 추구하는 의복이미지에 대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이미지는 체형별 차이가 있었는데 뚱뚱한 체형이 51.1%로 가장 많았다. 편안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는 체형별 차이가 없이 25.6~29.3%가 추구하고 있었다.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는 체형별 차이가 있었는데, 마른체형을 가진 여대생들이 18.6%로 가장 많이 추구하였으며, 다음이 보통체형이었고, 뚱뚱한 체형이 가장 적게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는 10.1%로 가장 낮았다. 의복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30~60대의 중·노년층 여성이 선호하는 의복이미지는 우아한 고급스러운 이미지라 하였고(Kim 2003), 여대생을 대상으로 의복이미지의 중요도를 알아본 결과 눈에 띄는, 색시한, 유행성 이미지의 순이라 하였다(Hwang 1998). 또한 남녀공학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의복추구이미지를 조사한 연구에서 깔끔하고 자연스럽고 세련된 이미지 순으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Chung 2001). 선행연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젊은 여성일수록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선호하며, 중년으로 갈수록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평균 나이가 20대 초반으로 유행에 민감하고 활동성과 경제성을 고려하는 시기로 체형에 관계없이 우아한 이미지보다는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장 많이 추구하고, 편안하고 활동적인 이미지는 보통체형이 가장 선호하였으며,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는 마른 체형이 가

Table 7. Pursuing clothing image for street wear(%)

	Slim body type	Usual body type	Fat body type	Total
Fashionable and chic image	44.2	44.4	51.1	45.5
Elegant image	11.6	10.1	8.9	10.1
Comfortable and active image	25.6	29.3	26.7	28.3
Cute image	18.6	16.2	13.3	16.1

* p<.05

장 선호하였다.

체형결정에 영향을 주는 신체부위에 관한 사항은 Table 8과 같다. 체형이미지의 좋고 나쁨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부위는 다리길이라고 답한 사람이 13.1%로 가장 많았고, 허리둘레 10.7%, 엉덩이둘레 10.0%라고 답하였다. 그 외 가슴둘레, 머리카기, 어깨너비라고 응답한 경우도 9~10% 정도였다. 마른 체형의 경우 다리길이가 22.0%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가슴둘레가 12.2%, 엉덩이둘레와 머리카기가 9.8%로 나타났다. 보통 체형의 경우 다리길이가 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허리둘레와 넓적다리둘레가 11.4%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뚱뚱한 체형의 경우 가슴둘레와 머리카기가 12.5%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18~29세 미혼여성의 측면전신체형 분류(Kwon 1997)에 의하면 사진 계측치 인자분석결과 측면에서 본 체형을 나타내는 인자로 목뒤점 높이, 뒤희리 높이, 앞허리점 높이 등 대부분 높이항목에 적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Choi와 Do(2008)도 20~30대 여성의 하반신 체형 구성요인 중 높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키보다 엉덩이높이, 살높

이라 하였다. 둘레, 너비, 두께에 관련된 항목은 너비나 두께보다는 둘레항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체형이미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리길이,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라고 한 것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아름다운 체형기준인 등신 비율은 키에 대한 머리 길이 및 다리길이의 비율이다.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신체비율로 알려진 8등신은 얼굴크기가 1/8(12.5%), 다리길이가 키의 4/8(50%)인 체형을 의미한다. 이러한 등신지수를 결정짓는 다리길이와 머리카기가 신체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목두께와 발목둘레는 체형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체형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다.

Table 9는 자신의 의복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영향을 받는 것을 체형별로 알아본 것이다. 보통 체형의 경우에는 38.2%가 TV, 드라마, 영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 체형의 경우에는 자신의 체형이나 본인의 생각이 53.3%로 가장 많았고, 뚱뚱한 체형도 37.5%가 자

Table 8. Impact of body parts on body types decision(%)

Items	Slim body type	Usual body type	Fat body type
Bust girth	12.2	8.5	12.5
Waist girth	7.3	11.4	10.4
Hip circumference	9.8	10.0	10.4
Shoulder width	4.9	9.5	10.4
Head size	9.8	8.5	12.5
Neck length	2.4	2.5	2.1
Neck thickness	-	1.0	-
Upper arm girth	2.4	3.0	8.3
Thigh girth	2.4	11.4	4.2
Calf girth	7.3	6.5	2.1
Ankle girth	-	0.5	-
Arm length	2.4	1.5	-
Leg length	22.0	11.9	10.4
Trunk length	7.3	7.5	10.4
Height	4.9	4.5	2.1
Weight	4.9	2.0	4.2

신의 체형이나 본인의 주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체형의 경우는 대중매체에 많은 영향을 받고, 마른 체형이나 뚱뚱한 체형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의복 이미지를 만들어 그 틀 속에서만 의복을 선택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볼 때는 TV,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매체가 35.4%로 가장 높고, 자신의 체형이나 주관은 28.3%였다.

Table 9. Factors effecting on the clothing image(%)

	Slim body type	Usual body type	Fat body type
Mass media-tv, radio and screen	22.2	38.2	30.4
Her body type and her preference	53.3	29.9	34.4
Fashion trend	20.7	25.7	26.3
Others	3.8	6.2	8.9

이상적인 신체상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개방형 설문을 한 결과 19.8%가 ‘이효리’, 13.2%가 ‘전지현’이라고 하였다. 이유로는 ‘이효리’의 경우 적당한 근육으로 탄력 있어 보이는 모래시계형의 신체상이라 하였고, ‘전지현’의 경우에는 키가 크고 말랐으며, 다리길이가 길어 비율이 좋아 보인다고 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의복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받는 TV, 드라마, 영화 등의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연예인들 중 ‘이효리’, ‘전지현’의 신체상을 선호하는 것과 선호하는 신체상이 모래시계형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사이즈를 키와 가슴둘레는 자신의 실제치수보다 크게,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에서는 작게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신체만족도를

알아보고, 여대생의 WHR, WCR을 분석하였으며, 실제체형과 이상체형과의 차이를 파악하며 추구하는 패션이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여대생이 자신에 맞는 이미지 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22.7세이고, 키는 162.6cm, 몸무게 51.0kg이었다. WHR은 마른 체형과 보통 체형의 경우 각각 0.75, 0.76이며, 뚱뚱한 체형은 0.83이었다. WCR은 마른체형은 0.77, 보통체형은 0.81, 뚱뚱한 체형은 0.80이었다. 자신을 뚱뚱한 체형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는 자신을 실제보다 더 뚱뚱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2. 체형별 불만족부위는 마른 체형의 경우 가장 불만족하는 부위는 가슴둘레로 나타났다. 보통 체형의 경우 넓적다리와 장딴지, 그리고 뚱뚱한 체형은 발크기, 손크기, 팔길이를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불만족하다고 하였다.

3. 신체상에 대한 인지도는 마른 체형의 경우, 60%정도가 자신을 모래시계형 신체상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보통 체형의 경우 30.4%가 삼각형 신체상으로 답하였다. 뚱뚱한 체형의 경우는 43.8%가 자신을 원형의 신체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4. 이상치수와 자신의 실제치수를 비교한 결과, 키와 가슴둘레는 자신의 실제치수보다 큰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몸무게에서는 작은 값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5. 추구하는 의복이미지는 체형에 관계없이 20대 여성들은 ‘패셔너블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45.5%로 가장 많았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는 10.4%로 가장 낮았다.

6. 체형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부위는 다리길이가 13.1%로 가장 많았고, 허리둘레 10.7%, 엉덩이 둘레 10.0%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여성들이 추구하는 체형은 단순히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보다는 허리가 잘록한 모래시계형 체형을, 선호하는 패션이미지는 패셔너블하면서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사용되는 신체사이즈는 설문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므로 타 지역이나 다른 연령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Choi J, Do WH(2008) Analysis on lower body type and 3D virtual appearance evaluation of boots cut jeans for women.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46(2), 73-83.
- Choi MS(2008) A study on the preferred body shape and the perception between real and ideal body shapes of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32(3), 443-453.
- Chung IH(2001) The study on desired image and fabric preference of woman college student for apparel. *Res J Costume Culture* 9(4), 929-638.
- Cooper PJ, Taylor MJ(1988) Body image disturbance in bulimia nervosa. *Br J Psychiatry* 153, 32-36.
- Dixson BJ, Dixson AF, Li B, Anderson MJ(2007) Studies of human physique and sexual attractiveness: sexual preferences of men and women in China. *Am J Human Biology* 19 (1), 88-95.
- Fink B, Neave N, Manning JT(2003) Second to Fourth digit ratio, body mass index, waist-to-hip ratio, and waist-to-chest ratio: their relationships in heterosexual men and women. *Annals Human Biology* 30, 728-738.
- Fisher S, Cleveland SE(1968) Body image and personality. New York: Dover.
- Furnham A, Dias M, McClelland A(1998) The role of body weight, waist-to-hip ratio, and breast size in judgements of female attractiveness. *Sex Role* 39, 311-326.
- Ha CY, Koh AR, Chung MS(2005) Female adolescents' clothing behavior and hair style attitude as related to sensation seeking and body image.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29(5), 715-726.
- Han MR, Lee JS(2010) Natural Dyeing and Dyed Fabrics Properties with Persimmon Juice. *J Korean Soc Clothing Industry* 12(2), 224-232.
- Hong KH(2005),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 and obesity of adult women's appearance on body image and body satisfaction. *Proceedings of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Conference*, 116.
- Hur BK(2007) Colorful natural dyeing with mysterious fermented persimmon extract. Seoul: Joongang Life Publishing Co. pp. 105-107.
- Hwang JS(1998) The effects of body cathexis and importance of meeting the ideal body image on clothing benefits sought.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22(3), 293-302.
- Imai KZ(1995) Cultural history of persimmon dyeing. *Monthly Dyeing & Weaving α (alpha)* 172, 36-40.
- Imai KZ(2003) Kakisibu. Tokyo: Hosei University Publishing Co. 242-243.
- Jeong YO, Lee SJ, Jeon BG(1997) A study on dyeing of fabrics using the preserved persimmon juice.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8(2), 73-81.
- Jung JE, Nam YJ(1999) A study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body cathexis and ideal body shape of 18 to 25 year-old women.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23(1), 159-169.
- Kamata T(1993) Traditional persimmon tanning dyeing in Jeju island. *Monthly Dyeing & Weaving α (alpha)* 149, 32-36.
- Kawabata S, Niwa M, Postle R(1986) The standardization and analysis of hand valuation. *The Textile Machinery Soc Japan*.
- Kim JS, Lee MS(2001) The effect of TV media on adolescent' body images.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25(5), 957-968.
- Kim SS, Yang JS, Choi JM(2000) The evaluation of physical properties and hand of bast/man-made fiber mixed fabrics.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24(6), 828-837.
- Ko ES, Lee HS(2003) Effect of dyeing by immature persimmon juice on the hand of fabrics.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27(8), 883-891.
- Kwon GY, Sally IH(2006) The study of ideal body images based on the product types in fashion magazine advertisement.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30(12), 1672-1682.
- Kwon KY(2003) The study of body characteristics and fashion in fragrance advertising.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41(11), 35-48.
- Kwon SH(1997) Classification and analysis of the somatotype through side view silhouette of the whole body by multivariate method.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21(7), 1227-1235.
- Lee BS, Sim YJ, Lee SJ(1997) Graphical Analysis of bmi, broca and röhrer indices in terms of anthropometric levels. *J Korean Nutr Soc* 30(2), 195-200.
- Lee JH, Cho GH(1995) The effect of elements of apparel design on impression formation. Part I: Emphasis on the Effect of Form and Color of Cloths,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19(5), 747-764.
- Lee KL, Park SH(2008) Casual image classification by clothing design elements.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32(11), 1171-1781.

- Lee MS(2008) The effect of the intemalization of socio-cultural values relating to appearance on adolescents' body image and clothing behaviors. *J Korean Soc Costume* 58(6), 96-109.
- Lee SA(1998) Persimmon juice dyeing in Jeju. *J Japan Research Assoc Textile End-Use* 39(1), 35-39.
- Lee SL(2008) The body images of stars in the screens by linked with the fashion in the based on the jean baudrillard's theory.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19(3), 431-444.
- Marlowe F, Wetsman A(2001) Preferred waist-to-hip ratio and ecology.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30, 481-489.
- Nam YJa, Lee SH(2001) Comparison of Perceived body size and actual body siz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women.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25, 764-772.
- Niibayashi NK, Miyamoto S(2006) Coloration tensile strength, bending resistance and waterproof of fabrics dyed with persimmon tannin juice. *Japan Clo Res* 29(2), 115-125.
- Omori M, Ishii KK, Kwon HJ, Suzuki NY(1999) A Study on Korean Jeju persimmon tanning dyeing (I). *J Minatokawa Woman' Junior College* 33, 99-104.
- Park DJ, Park SJ, Ko JS(1999) Dyeing of fabrics with immature persimmon juice.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10(1), 1-6.
- Park JK, Nam YJ, Choi KM(2004) A comparison of satisfaction for actual body and perceived body between korean and japanese female college students.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28(6), 758-766.
- Park SJ(1995) An experimental study on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fabrics dyed with persimmon juice.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19(6), 955-967.
- Park SJ(2011a) Comparative study on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persimmon juice, persimmon dyeing method, and transfiguration of persimmon dyed items in Korea and Japan.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2(1), 77-94.
- Park SJ(2011b) A study on development and properties of the persimmon juice dyed fabrics with printing. *Proceeding of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Autumn Conference*, 120-121.
- Park SJ, Park DJ(1998) The development of clothing using traditional immature persimmon juice in Jeju.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
- Park SJ, Son WK(1999) The effect of differences between Gal-Ot and undyed clothing, and clothing types on wear sensation.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23(1), 30-41.
- Park YS, Lee YW, Choi KS(1995), Objectivity of self-evaluated obesity and attitude toward weight control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 Dietary Culture* 10(5), 367-375.
- Rasband J(1994) *Fabulous Fit*. Fairchild Publication, 26-95.
- Row Y, Park JO(2008) A study on apparel product design elements according to image preference - Applied to quality function deployment focused on middle aged and aged women's formal wear -.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32(10), 1522-1534.
- Row Y, Park JO(2008) A study on apparel product design elements according to image preference - applied to quality function development focused on middle aged and aged women's formal wear. *J Korean Soc Clothing & Textiles* 32(10), 1522-1534.
- Ryou EJ, Kim YH(2008)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and motives by body image of college men.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 46(1), 63-72.
- Shin BS, Kim YM, An TJ(2003) Dyeing of silk fabric with persimmon extract. *Korean J Sericulture Sci* 45(1), 66-70.
- Shin JD, Choi JM(2008)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ornament wearing practices in relation to the body satisfaction and image of female college students. *Res J Costume Culture* 16(2), 305-318.
- Singh D(2002) Female Mate Value at a Glance: Relationship of Waist-to-Hip Ratio to Health, Fecundity, and Attractiveness. *Neuroendocrinology* 23, 81-91.
- Singh D, Young RK(1995) Body Weight, Waist to Hip Ratio, Breasts, and Hip: Role in Judgements of Female Attractiveness & Desirability for Relationships. *Ethology and Sociobiology* 16, 483-507.
- Terada M(2007) *Enjoying of persimmon juice dyeing craft*. Tokyo: Kodamasha. 34-78.
- Yang HJ, Miyazaki K(2003) Galot as persimmon juice dyeing culture in the Jeju island. *Bulletin JSSD* 50(2), 9-18.